

○ 평가 총평

- 코로나-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제작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원신청 프로젝트의 수는 예년 수준임
- 각 심의위원이 심의평가 기준표에 의한 배점요소를 적용하여 독립적, 개별적으로 평가한 후 전체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였음
- 일부 지원업체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여 지원결정에도 불구하고 은행 심사 과정에서 불가 판정이 날 수 있음
- 전반적으로 콘텐츠 및 부가상품의 판매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, 방송사 방영계획을 제시한 업체의 대부분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함
- 특정 업체의 지원신청 프로그램이 과다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액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음